

시간의 비밀

작성일 : 2010. 11. 28 (일) 새벽 1:30

작성자 : 주은혜 (부산 주 향기로운 교회)

[며칠 전 눈앞에서 얼쩡거리던 작은 벌레를 손바닥으로
확 쳤습니다. 인간이 벌레를 쳐서 기절시켰을 때 벌레가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인간의 시간으로는 순간이지만
벌레의 시간으로는 아주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떠올라서 예수님께 여쭙었습니다.

“주님, 왜 벌레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른가요?”

“시간은 한 생명체의 크기, 질량 등에 따라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크기가 크면 더 빠른 시간 속에
살고, 작으면 더 느린 시간 속에 살게 된다.”
어려운 말씀이라 이것저것 여쭙어보았지만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주님께서 해 주신 말씀들을 정리한
글입니다.

* 예수님 말씀 *

시간은 각종 생물에 따라 다르게 느끼고,
크기와 물질에 따라 다르게 느끼며
그 존재에 따라 다르게 느낀다.
인간은 표준화 된 ‘시간’을 통해
하루를 정하고, 1년을 정하며
시간의 흐름을 말하지만
그것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시간은 절대적이기도 하고 상대적이기도 하기에
동물의 시간, 곤충의 시간은
너희와 달리 흘러가며
그와 마찬가지로 영계의 시간 또한
인간과 다르게 흘러간다.

너희에게는 1분이라는 시간이
다른 생물들에게는 1분 보다 더 길게 느껴질 수도
더 짧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시간이,
인간이 말하는 것처럼 객관화하여서만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너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몇 분, 몇 초, 몇 시간이라고
표현될 수 있으나
그것은 영계, 육계, 우주 모두 포함되어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옥의 시간과 천국의 시간을 비교해 보자.

천국의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옥의 시간은 천국의 시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천천히 흘러간다.
지옥과 천국의 시간이 각각 다르기에 그러하고,
감정적으로도 기쁨에 속한 시간은
훨씬 빨리 흘러가고,
고통에 속한 시간은 상대적으로
늦게 흘러가기에 그러하다.

하루살이의 시간도 인간의 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훨씬 빨리 흘러간다.
하루살이는 인간의 하루라는 평생을 두고
100년같이 살다가 죽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루살이 벌레를 보고
짧게 살다 죽는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벌레에게는 하루가 평생이니,
너희의 1초가 하루살이에게는 일주일처럼 길다.

또, 인간의 시간과 영계의 시간을 비교해 보자.
사람의 영이 영계에 와서 잠깐 있으며
이것저것 경험하고 다시 지구에 와 보면
며칠이 지나 있는 것과 같이
지구의 시간은
영계의 시간에 비해 아주 빠르게 흘러간다.
영계의 시간으로 100년이면
지구의 시간으로는 셀 수 없는 날들이 반복되어지고,
없었던 산이 생겨났다가,
다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1분이,
곤충, 동물에게는 각각 다른 시간으로 다가오기에
너희가 느끼는 1분의 시간과
다른 생물이 느끼는 1분의 시간은 다르며
그들이 느끼는 ‘순간’이라는 것과
너희가 느끼는 ‘순간’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라.
그런 즉 시간은 절대적으로만 정의되어 질 수도 없고
또한 똑같이 누리는 것도 아니니
인간의 표현처럼 모두에게 표준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천지창조의 7일은 너희의 시간으로 7일이 아닌
하늘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으로 7일이다.
이 7일이라는 시간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뜻이 내포되어 있고,
‘시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구상 또한 품고 있는 것이다.

시간은 지구촌, 또한 삼위가 창조하신
모든 이들에게 각각 다르게 주어졌다.
사람과 영인, 동물과 식물
해, 달, 별과 우주의 공간, 지구, 영계는
각각 자신에게 맞게
주어진 시간을 순간처럼 쓰며 누리고 살고 있다.
1분을 1년같이 쓰기도 하고
100년을 1초같이 쓰기도 하며
각각에게 맞게 쓰고 있는 것이다.

이는 축소하여 보면 인간의 세계와도 같다.
인간들 또한 각각 다른 시간을 산다.
어떤 자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을
48시간으로 사는 자가 있고,
또 하루라는 시간을 12시간처럼 쓰는 자가 있으니
인간 전체가 표준화하여
정의되어진 시간이라 할지라도
각각이 달리 쓰며,
이익을 얻고 생활을 하며 존재하고 있다.

인간이 100년이라는 시간을 산다고 가정하면
어떤 이는 200년을 살다가 죽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30년을 채 못살고 죽는 자가 있다는 것이다.
너희의 눈으로는 모두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사는 것 같을지 모르나
삼위는 시간의 주관자이자
시간 위에 있는 분이니
너희의 삶의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어떠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훤히 보고 있노라.

인간의 특성에 따라 시간이 흘러가니
게으른 자는 행동이 느리기에
그 시간이 너무나 빨리 가서
하루라는 시간 동안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다.
남긴 것이 없으면
자신의 시간을 버린 것이 되고
또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1분처럼 살거나 그냥 버린 것과 같으니
하루가 없어진 것과 같다.

하지만 부지런한 자는

2, 3일 동안 해야 할 일을
하루 만에 하니 3일을 번 자요,
자기가 한 만큼 시간을 더 가진 자가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시간의 이치요,
시간이 각각 다르게 존재한다는 증거와 같다.

너희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느냐.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빨리 흘러만 가느냐,
아니면 느리게 흘러가느냐.
너희는 촉박하게 흐르는 시간을 잡으며
남길 것을 남기고
하루를 1000년같이 사는 자가 되어라.

하루에 백 년, 천 년을 움직이는 일을 한 자는
천 년을 하루에 축소하여
하루를 천 년같이 산 자가 되는 것이요,
천 년이라는 세월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남기는 것 없이 살았다면
그 자는 천 년을 하루같이 산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시간을 너희에게 맞게 써라.
버리지 말고, 아끼고 쪼개고
합당하게 사용하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쓰는 그 시간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고
너희는 다시 한 번 더 살 수 없음을 알며
오늘 밖에는 없는 듯이 살아야 한다.

할 일을 미루지 말고
진정으로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감사하며
지혜롭게 쓰길 바란다.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성공 여하가 달라진다.
결국 돈을 많이 가진 자,
명예가 있는 자, 인맥이 많은 자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중에 시간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인생 성공의 근본을 들고 있는 자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라.
섭리사도 진정 성공하길 원한다면
시간을 제대로 쓰고,
시간의 지혜와 깊이를 발견하는 자들이
충만하고 많아져야 할 것이다.
부지런한 자들이 결국 성공하고
시간을 아끼며 쓰는 자들이
결국 인생들을 이끌며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시간의 비밀을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진정 알고, 실천하며
각각의 인생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진정 사랑한다.

사랑과 진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